MACRO
VIEW

2026. 2. 20.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2월 넷째 주

Green shoots of spring

- 최근 발표된 미국 주요 지표들이 노동시장의 안정세 전환과 성장률의 가속화를 시사. 반면, 1월 핵심 PCE 물가는 0.4%로 12월과 유사한 상승률을 유지할 전망
- 노동시장 안정화, 성장률 가속화, 물가 둔화 지연의 조합은 적정 범위(4.0~4.5%) 하단에 재차 근접한 미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

2월 들어 발표된 미국 주요 경기 지표들은 노동시장이 둔화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되었고, 성장률도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까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4.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올 1월 4.3%로 재차 낮아졌고,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취업자 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 수도 지난해 하반기의 빠른 둔화 추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성장률의 경우도, 지난해 3Q 4.4%, 4Q 2.0%(컨센서스 전망은 3.0%)에 이어, 올 1Q GDP가 4%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11월 중순까지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던 미국 성장률이 정상화되는 부분과 함께, 감세 법안(OBBA)에 따른 소득세 환급이 올 2~4월 중 민간 소비를 의미 있게 부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사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4%로 상향 조정한다.

반면, 1월 소비자물가는 핵심 CPI가 예상에 부합하였지만, Fed가 기준으로 하는 PCE 물가 지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이나 IT 제품들의 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따라서, CPI를 근거로 추정한 1월 핵심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4%내외로 지난해 12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기준 1월 핵심 PCE 물가는 3.1%(기존 전망 3.0%)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관세 효과 제외 시, 2.4~2.5%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기 및 물가 지표의 흐름은 이번 주 공개된 1월 FOMC 회의록에서 확인된 것처럼, Fed의 wait-and-see 모드가 향후 수개월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이 2개월 연속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기자회견에서 "FOMC 참여자 중 누구도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1월 회의록을 통해 몇몇(Several: 통상 5~6명)의 참여자들은 물가 목표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양방향성(two-sided)을 언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물가의 둔화세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FOMC 내 폭넓은 컨센서스로 자리잡기까지는 2~3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중반으로 갈수록 관세 효과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PCE 물가 지수의 disinflation 추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사는 핵심 PCE 물가가 올 1월 전년 대비 3.1%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 올해 말 2.2%(vs. FOMC 전망치 2.5%)까지 둔화되면서 물가 목표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올해 Fed의 첫 금리 인하를 6월, 두 번째 인하 시점을 9월로 예상하는 당사의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한편, 설 명절 기간 동안 미국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큰 변화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 장기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예상에 부합한 1월 CPI에 대한 안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PCE 물가 지수의 둔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고용시장의 안정화, 경제성장률의 가속화, 물가 둔화의 지연 등의 조합은 2월 들어 당사가 추정하는 적정 범위(4.0~4.5%) 하단에 재차 근접한 미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허진욱)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한국: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26일)가 예정되어 있다. 당사는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동결을 예상한다. 이는 '26년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1월의 한은 전망(3.7%)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져 같은 날 발표될 '26년 성장률 전망이 1.9%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외환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2월 들어 발표된 미국 주요 경기 지표들은 노동시장이 둔화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되었고, 성장률도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까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4.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올 1월 4.3%로 재차 낮아졌고,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취업자 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 수도 지난해 하반기의 빠른 둔화 추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성장률의 경우도, 지난해 3Q 4.4%, 4Q 2.0%(컨센서스 전망은 3.0%)에 이어, 올 1Q GDP가 4%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11월 중순까지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던 미국 성장률이 정상화되는 부분과 함께, 감세 법안(OBBA)에 따른 소득세 환급이 올 2~4월 중 민간 소비를 의미 있게 부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 전망의 지속적인 개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risk-on 모드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1월 소비자물가는 핵심 CPI가 예상에 부합하였지만, Fed가 기준으로 하는 PCE 물가 지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이나 IT 제품들의 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따라서, CPI를 근거로 추정한 1월 핵심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4%내외로 지난해 12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기준 1월 핵심 PCE 물가는 3.1%(기존 전망 3.0%)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관세 효과 제외 시, 2.4~2.5%로 추정된다.

설 명절 기간 동안 미국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큰 변화없이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국 장기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예상에 부합한 1월 CPI에 대한 안도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PCE 물가 지수의 둔화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고용시장의 안정화, 경제성장률의 가속화, 물가 둔화의 지연 등의 조합은 2월 들어 당사가 추정하는 적정 범위(4.0~4.5%) 하단에 재차 근접한 미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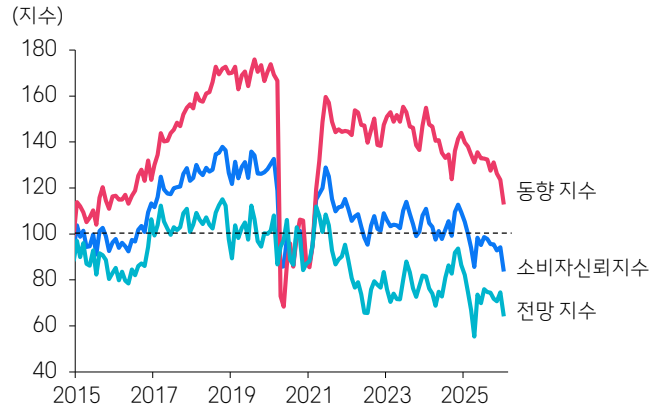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한국	2월 26일	2월 금통위	-	-	-	-	• 기준금리 2.5%로 동결 예상
경제 지표							
미국	2월 24일	12월 공장주문	전월 대비	1.0%	2.7%	상	
	2월 25일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87.5	84.5	상	
	2월 27일	1월 PPI	전월 대비	0.3%	0.5%	상	
유로존	2월 26일	2월 경제신뢰지수	지수	99.6	99.4	중	
독일	2월 23일	2월 IFO 경영환경지수	지수	88.2	87.6	상	
	2월 27일	2월 CPI	전월 대비	0.4%	0.1%	상	
한국	2월 24일	1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	1.9%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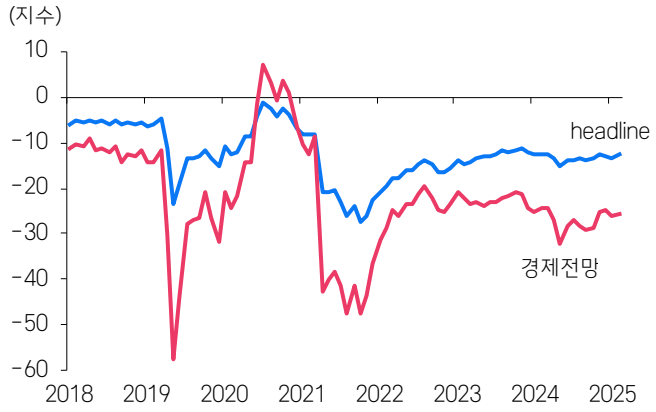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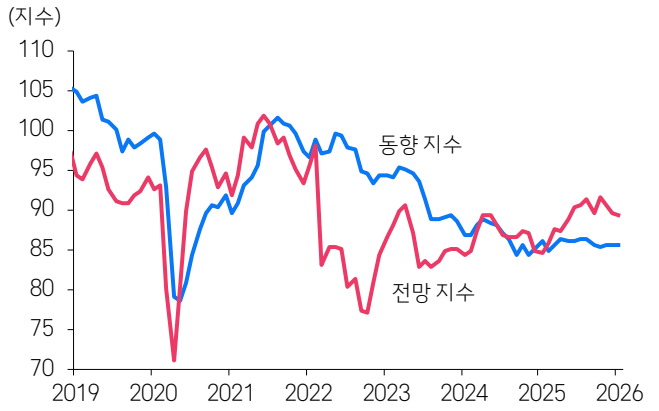
자료: The Conference Board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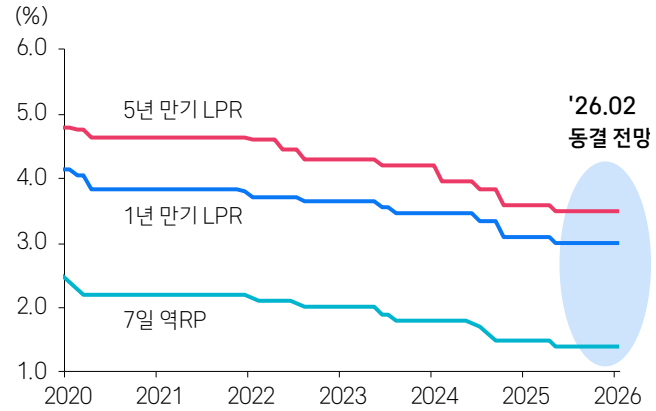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독일 IFO 동향 및 전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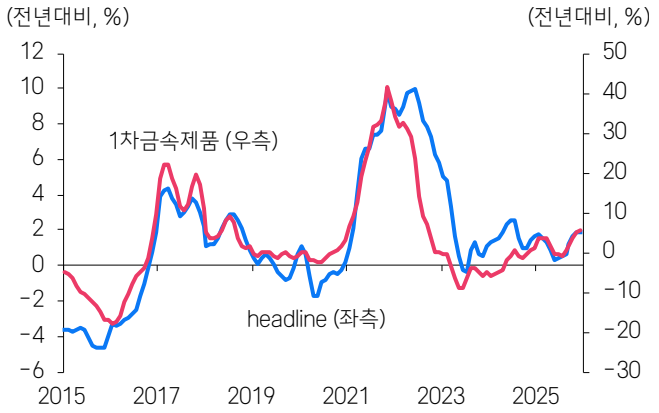
자료: Ifo Institute

중국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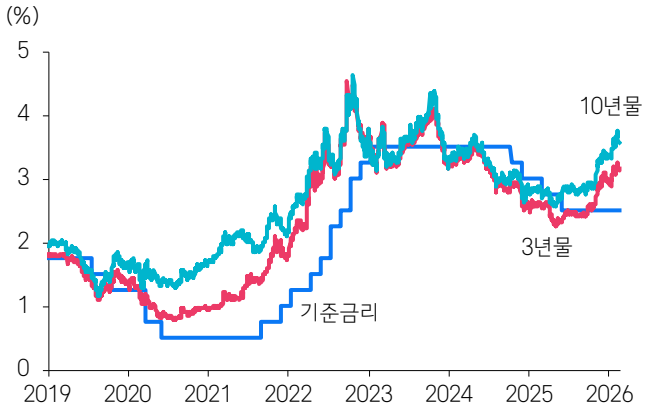
자료: 중국 인민은행, 중국 NIFC

한국 생산자물가: headline vs. 1차금속제품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한국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 12월 미국 내구재 신규주문(18일)이 발표되었다. 12월 내구재 신규주문은 전월 대비 1.4% 감소하면서 11월(5.4% 증가, 이하 모두 전월 대비) 대비 반락했다. 다만, 이는 주로 11월 비국방 항공기 및 부품 주문이 98.2% 급증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시장예상(-2.0%, 이하 모두 Bloomberg 기준) 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다. 설비 투자의 proxy 지표로 사용되는 핵심 내구재 주문의 경우 12월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전월(0.4%) 및 시장예상(0.3%) 수준을 모두 상회했다.

유럽: 이번 주에는 2월 유로존 ZEW 경제 전망 및 동향지수(17일), 1월 영국 소비자물가(18일)가 발표되었다. 유로존 ZEW 경기전망지수는 39.4, 경기동향지수는 -13.6을 기록했다. 경기전망지수는 1월(40.8)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 동향은 1월(-18.1) 대비 큰 폭 개선된 것이다. 연초 이후 독일 재정 확대가 가시화되며 심리 지표까지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한편, 영국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0%를 기록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이는 12월(3.4%) 대비 하락한 것이며, 2025년 3월 이후 최저치이다. 이러한 하락세는 주로 식품 물가상승률이 4.5%에서 3.6%로 낮아진 영향이다. 영국의 노동시장 압력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어 소비자물가의 둔화 흐름은 연중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이번 주에는 춘절 소비 데이터 중간 집계가 발표(19일)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춘절 연휴 첫 4일간(15~18일) 주요 소매 및 외식 기업의 일평균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년의 5.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 데이터를 보면, 하이난 면세 판매액이 면세 정책 확대에 전년 대비 15.8% 증가했고, 이구환신 정책에 새로 포함된 스마트 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액이 19.7% 증가(첫 3일 기준)했다. 반면, 춘절 연휴 첫 3일간 78개 주요 상권의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매출은 4.8% 증가했고, 주요 플랫폼의 국내 여행 소비는 4.5%를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중국의 소비 지원 정책은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소비를 전반적으로 부양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 이번 주에는 1월 소비자물가(20일)가 발표되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5%,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는 2.7%를 기록하며, 12월(각각 2.1%와 2.9%)보다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다만, 1월 소비자물가의 둔화는 채소와 과일 가격에서의 기저효과와 함께 유류세 인하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의 억제라는 정책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일반 서비스물가와 외식물가는 각각 전년 대비 2.0%와 3.9%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당사는 다카이치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의 한시적 폐지를 시행하면서 '26년 소비자물가는 1% 중반에 머무르지만, 장기평균을 상회는 유효구인/구직 배율(1월 1.19), 춘투에서의 높은 임금 상승률 예상, 기준치를 상회한 2월 PMI(종합 기준 52.8)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에서 물가 압력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한다. 그에 따라 BOJ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의 7월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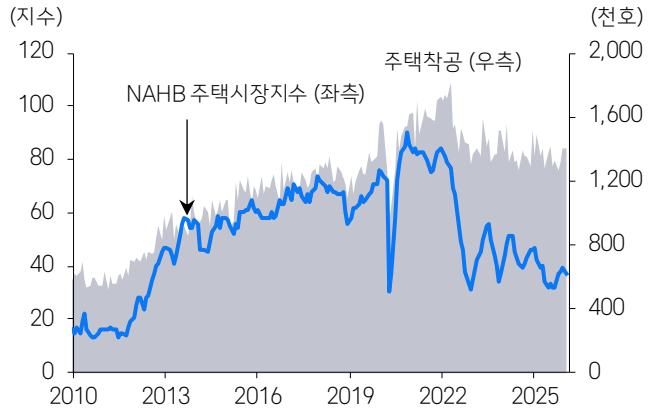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경제 지표								
미국	2월 18일	2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지수	38.0	36.0	37.0	Below	
		12월 내구재주문	전월 대비	-2.0%	-1.4%	5.4%	Above	
		12월 자본재주문	전월 대비	0.3%	0.6%	0.8%	Above	
		12월 주택 착공	전월 대비	1.1%	6.2%	3.9%	Above	
	2월 20일	12월 개인소득	전월 대비	0.3%	-	0.3%	-	
		12월 개인소비	전월 대비	0.3%	-	0.5%	-	
		12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3%	-	0.2%	-	
		4분기 GDP	전기 대비 연율화	2.8%	-	4.4%	-	
		2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52.4	-	52.4	-	
		2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3.0	-	52.7	-	
유로존	2월 16일	12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1.5%	-1.4%	0.3%	Above	
	2월 20일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지수	-12.0	-12.2	-12.4	Below	
		2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50.0	-	49.5	-	
		2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1.9	-	51.6	-	
독일	2월 17일	2월 ZEW 전망 지수	지수	65.2	58.3	59.6	Below	
		2월 ZEW 동향 지수	지수	-65.9	-65.9	-72.7	In-line	• 독일 재정 확대로 심리 지표 유의미하게 반등
	2월 20일	2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2.4	-	52.4	-	
		2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49.5	-	49.1	-	
일본	2월 16일	4분기 GDP	전기 대비 연율화	1.6%	0.2%	-2.6%	Below	
	2월 20일	1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6%	1.5%	2.1%	Below	• 정책적 요인으로 상승률 둔화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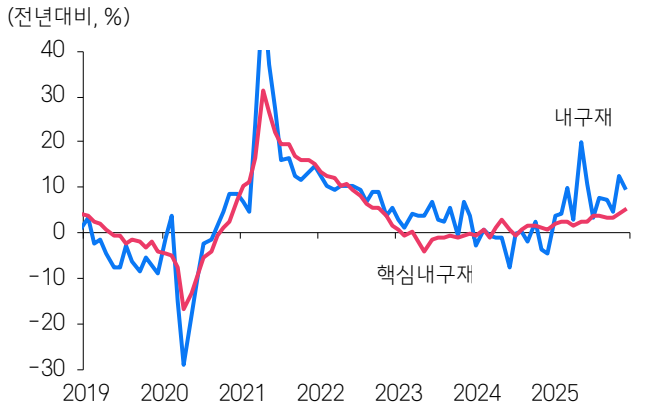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NAHB 주택시장 지수 및 주택 착공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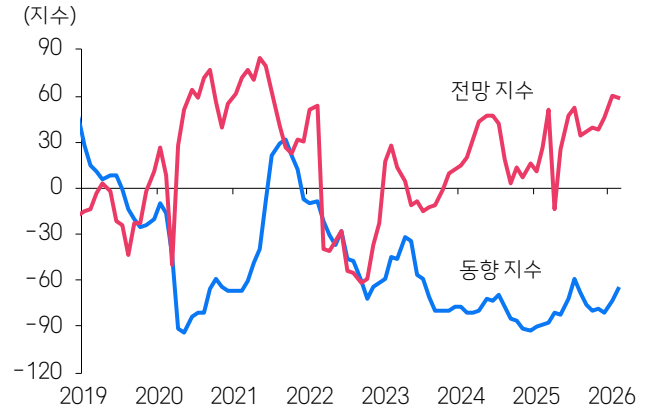
자료: U.S.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U.S. Census Bureau

미국 내구재 및 핵심 내구재 주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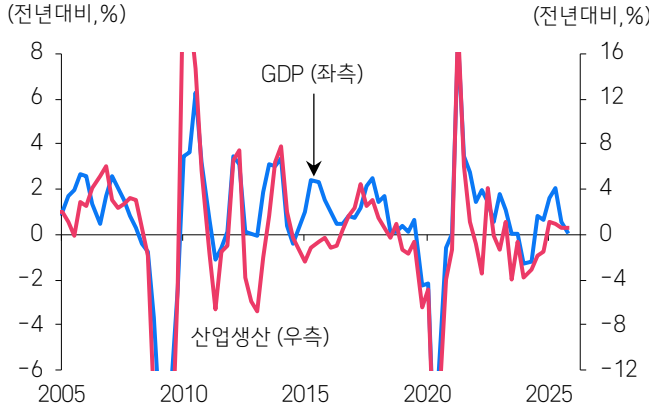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독일 ZEW 지수: 경기 동향 vs.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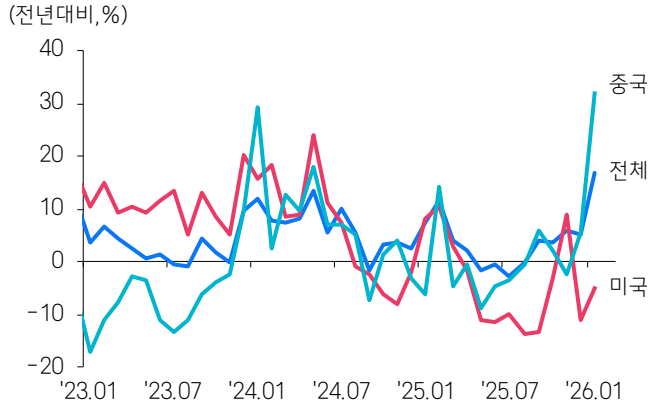
자료: Leibniz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일본 GDP와 산업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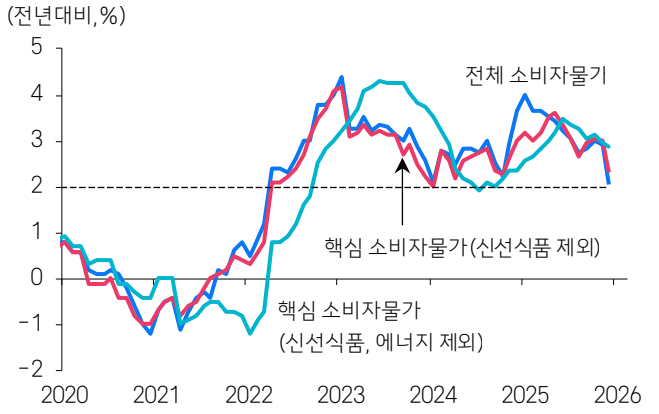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경제산업성, 삼성증권

일본 전체 및 주요 무역 상대국별 수출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삼성증권

일본 전체 및 핵심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일본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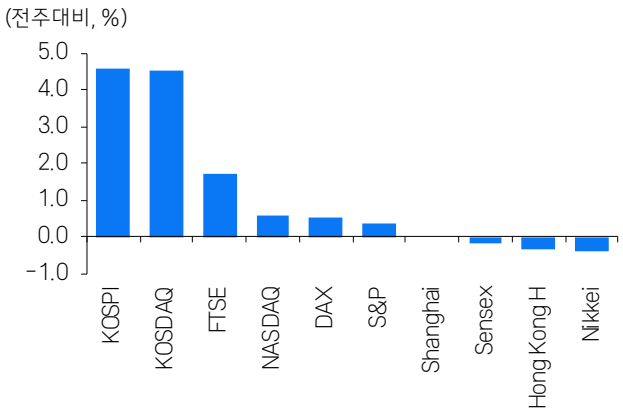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2월 20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경제 지표 호조, 실적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시장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증시에서는 산업재 기업들의 호조가 이어졌으며, S&P 500은 +0.4%, NASDAQ은 +0.6%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금융, 통신서비스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재/에너지/IT 등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졌다. 유럽 Stoxx600은 +1.2%, 프랑스 CAC는 +1.0%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 증시는 주요 업종 전반에 걸쳐 폭넓은 랠리가 나타났다. 코스피는 +4.6%, 코스닥은 +4.5%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96.9에서 98.0로 상승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된 가운데,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된 1월 FOMC 회의록, 경제지표 호조 등이 주요 배경이었다. 19일 공개된 1월 FOMC 회의록에서 몇몇(Several) 참여자들이 물가 목표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양방향성(two-sided)을 언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월 의장이 지난 12월과 1월 FOMC 기자회견에서 "참여자 중 누구도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달러 강세 과정에서 시장예상을 하회한 4Q GDP와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 등에 따라 엔/달러는 152.7엔에서 155.2엔으로 약세를 보였다. 한편,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5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대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주 달러 대비 원화는 -0.4%, 유로화 -0.9%, 파운드 -1.5%, 엔화 -1.6%, 위안화는 보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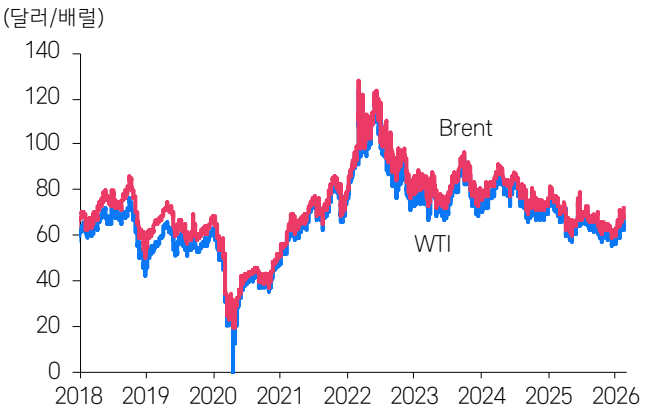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62.9에서 $66.8로, 브렌트는 $67.8에서 $71.9로 상승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진행된 핵협상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이란이 미국의 주요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결렬도 지정학적 우려를 높이며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금과 은은 각각 1.0%, 0.8%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2월 2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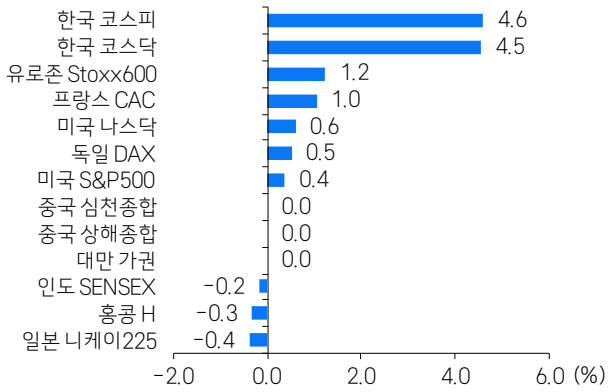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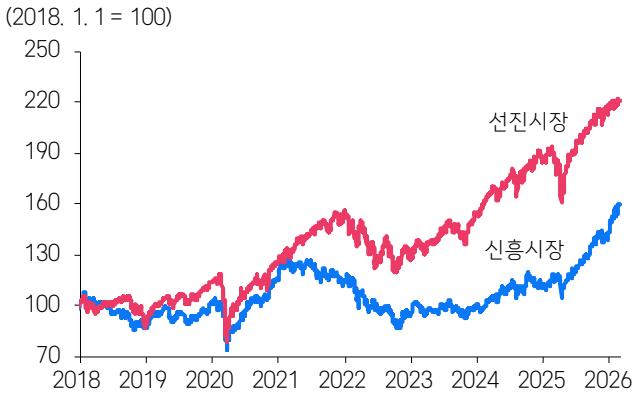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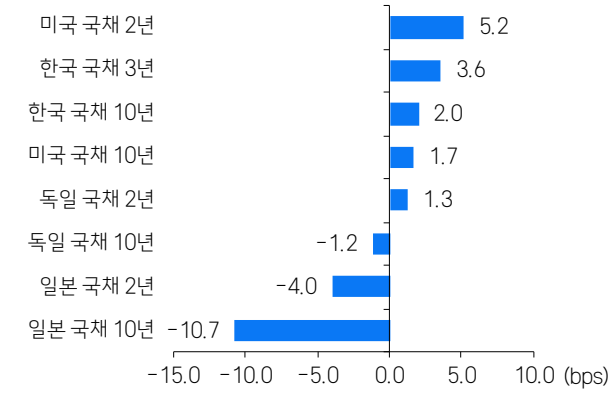
참고: 2월 2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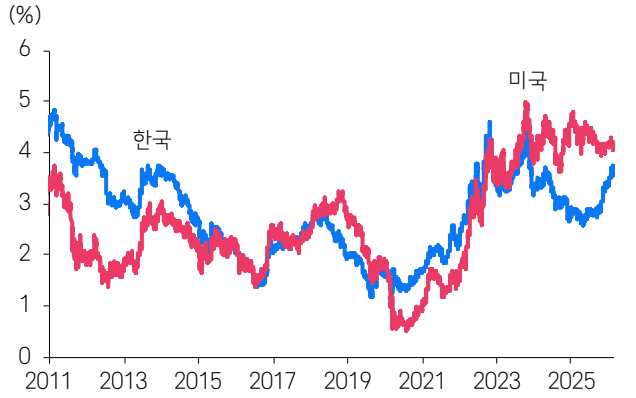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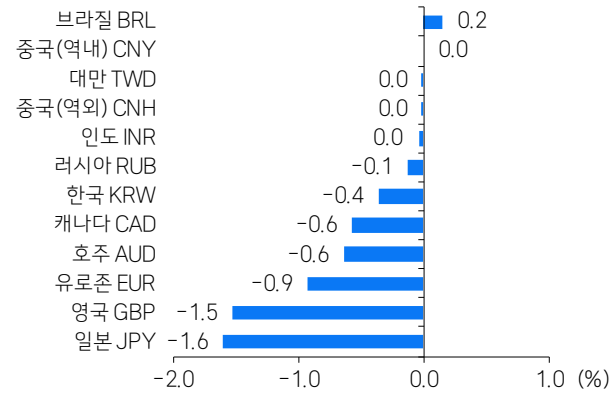
참고: 2월 2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2월 2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3개월	1년	변화 내용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25)	(75)	1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3.75%로 동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경제 전망의 개선, 특히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 약화와 물가의 상방 리스크 완화를 강조하며, 추가 인하의 시급성이 낮아졌음을 시사. 또한, 지난 3연속 금리 인하를 통해 중립 금리 상단에 도달함에 따라, 서두르지 않고 경제 지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well-positioned)에 있다고 강조
유로존	2.00	2.25	25.06.05	0	(75)	ECB, 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 라가르드 총재는 라가르드 총재는 "여전히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고, 인플레이션도 좋은 수준"이라 밝혔으며,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7%를 기록해 시장 예상을 하회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 부연
한국	2.50	2.75	25.05.29	0	(50)	한국은행, 1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2.50%로 동결. 금리 인하 소수의견 사라지고 통방문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동결과 인하 5:1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의견이 1명으로 크게 줄었음
일본	0.75	0.50	25.12.19	25	25	일본은행,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0.75%로 동결. 정책위원들의 경제전망은 FY'25~26년의 성장 및 물가(에너지 및 신선 신품 제외) 전망은 무역관련 불확실성의 완화와 지난해 추경을 반영하여 0.2~0.3%pts 상향 조정됨. 반면, 오후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장기 금리 급등을 경계하며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신중했으며 필요시 국채 매입을 시사
영국	3.75	4.00	25.12.18	(25)	(75)	BOE, 2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 3.75%로 동결.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면서도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밝힘. BOE 성명에서 인플레 전망 변화에 따라 완화의 규모와 시기는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중국	1.40	1.50	25.05.08	0	(10)	5월 7일, 중국 인민은행은 정책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 이에 7일 만기 역RP는 1.5%에서 1.4%로, 가중평균 지준율은 6.6%에서 6.2%로 인하되었으며, 추후 LPR도 함께 하락할 것이라 언급. 아울러, 서비스 및 양로 산업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도 확대
기타 지역						
멕시코	7.00	7.25	25.12.18	(25)	(250)	멕시코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25년 4분기와 이후 두 분기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26년 3분기까지 목표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함
인도	5.25	5.50	25.12.05	(25)	(100)	인도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물가 안정과 견조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난 골디락스 상황을 기준 금리 인하 배경으로 꼽았으며,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어둠
브라질	15.00	14.75	25.06.18	0	175	브라질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도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발동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 사이클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250)	(800)	튀르키예 중앙은행,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100bp 인하.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며 중기적으로 5%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	4.75	5.00	25.09.17	0	(10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시장 예상을 벗어나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은 불확실성 속 루피아화 안정화와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률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호주	3.85	3.60	26.02.03	25	(25)	호주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3.85%로 인상. '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인상. 중앙은행 측은 '25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또한, 물가에 대해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중반에 3.7%로 정점을 찍고 내년 초순까지 2~3%인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스웨덴	1.75	2.00	25.10.01	0	(50)	스웨덴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경제 성장과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이유가 없으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스위스	0.00	0.25	25.06.19	0	(50)	스위스 중앙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미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 그친다며, 미국 무역정책이 스위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한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총재는 많은 경제 주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중앙은행 책무 이행에 정말 필요하다면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임
러시아	15.50	16.00	26.02.13	(100)	(550)	러시아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하 단행. 중앙은행 측은 러시아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졌으며, 세제 개편이 연초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관련 있다고 언급
뉴질랜드	2.25	2.50	25.11.26	(25)	(150)	뉴질랜드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내 여력이 확대되고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할 여지가 생겼다고 언급
캐나다	2.25	2.50	25.10.29	0	(75)	캐나다 중앙은행,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25%로 25bp 인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관세가 자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 목표치인 2%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2월 13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5,507	5,507	5,507	5,507	5,677	5,760	4.6	17.9	43.8	84.0	117.0	116.7	134.6	36.7
미국 S&P 500	6,836	6,836	6,843	6,881	6,862	6,862	0.4	1.0	4.9	7.3	12.2	37.9	68.2	0.2
일본 NIKKEI 225	56,942	56,806	56,566	57,144	57,468	56,727	(0.4)	7.0	13.9	32.3	46.7	47.9	106.0	12.7
영국 FTSE	10,446	10,474	10,556	10,686	10,627	10,627	1.7	4.9	11.5	14.4	22.7	37.7	32.6	7.0
독일 DAX	24,915	24,801	24,998	25,278	25,044	25,044	0.5	1.4	7.6	3.2	12.2	46.7	61.8	2.3
중국 상해종합	4,082	4,082	4,082	4,082	4,082	4,082	0.0	(0.8)	3.8	8.4	21.8	39.7	24.1	2.9
홍콩 H	9,033	9,070	9,070	9,070	9,070	9,005	(0.3)	(1.0)	(1.5)	(0.1)	8.2	63.1	27.5	1.0
인도 Sensex	82,627	83,277	83,451	83,734	82,498	82,498	(0.2)	0.4	(3.7)	0.8	8.9	12.9	35.9	(3.2)
인도네시아 JCI	8,212	8,212	8,212	8,310	8,274	8,274	0.8	(9.4)	(1.7)	4.2	21.9	12.5	20.0	(4.3)
브라질 iBovespa	186,464	186,464	186,464	186,016	188,534	188,534	1.1	13.4	21.3	40.0	47.8	45.1	72.7	17.0
MSCI World (USD)	4,510	4,508	4,508	4,541	4,528	4,528	0.4	2.0	7.4	9.1	16.3	38.3	62.7	2.2
MSCI EM (USD)	1,555	1,558	1,556	1,561	1,563	1,563	0.5	5.6	14.0	24.1	38.0	53.4	55.5	11.2
채권 금리 (%)														
한국 국채 3년	3.14	3.14	3.14	3.14	3.18	3.18	4	(1)	26	74	55	(23)	(52)	23
한국 국채 10년	3.57	3.57	3.57	3.57	3.59	3.59	2	(6)	25	74	70	9	(7)	20
미국 국채 2년	3.41	3.41	3.43	3.46	3.46	3.46	5	(14)	(7)	(29)	(81)	(115)	(116)	(1)
미국 국채 10년	4.05	4.05	4.06	4.08	4.07	4.07	2	(23)	(2)	(23)	(44)	(21)	25	(10)
일본 국채 10년	2.23	2.21	2.14	2.15	2.15	2.12	(11)	(24)	30	51	67	139	161	5
독일 국채 10년	2.76	2.75	2.74	2.74	2.74	2.74	(1)	(12)	3	3	21	37	28	(11)
중국 국채 10년	1.79	1.79	1.79	1.79	1.79	1.79	0	(5)	(2)	0	7	(63)	(113)	(7)
인도 국채 10년	6.68	6.66	6.66	6.68	6.68	6.68	(0)	1	19	18	(3)	(38)	(68)	10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6.40	6.39	6.39	6.39	6.46	6.46	6	14	30	7	(32)	(16)	(26)	39
브라질 국채 10년	13.62	13.62	13.62	13.62	13.67	13.67	5	(39)	1	(37)	(102)	288	42	(7)
JPM EMBI Global	225.2	225.2	222.0	220.0	223.1	223.1	(2)	(5)	(20)	(41)	(65)	(94)	(154)	(8)
장단기 금리 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64	0.64	0.63	0.62	0.61	0.61	(3)	(9)	5	6	37	94	141	(9)
일본 국채 10년-2년	0.93	0.94	0.90	0.90	0.89	0.87	(7)	(27)	1	11	25	28	33	(2)
독일 국채 10년-2년	0.72	0.71	0.70	0.69	0.69	0.69	(2)	(10)	(0)	(9)	31	110	113	(4)
중국 국채 10년-2년	0.40	0.40	0.40	0.40	0.40	0.40	0	(2)	4	6	12	15	4	(5)
한국 국채 10년-3년	0.43	0.43	0.43	0.43	0.41	0.41	(2)	(5)	(1)	(0)	15	32	45	(2)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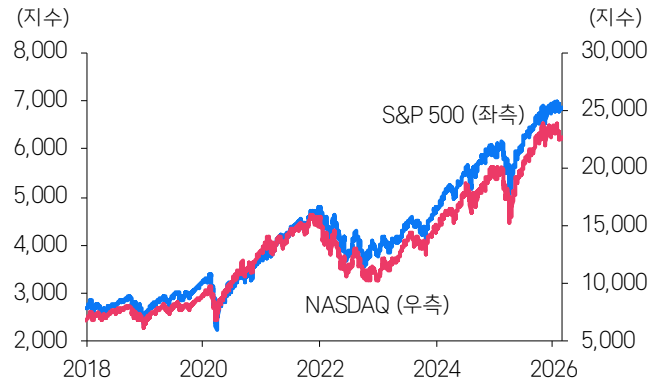
	2월 13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33.5	33.5	33.5	33.5	33.5	33.5	0	2	(2)	(6)	(1)	(7)	2	4
일본 (5년)	15.4	15.4	15.4	15.4	15.4	15.4	0	(0)	3	2	5	2	(1)	1
독일 (5년)	21.3	21.3	21.3	21.3	21.3	21.3	0	(0)	(2)	1	(7)	(11)	(21)	(1)
중국 (5년)	3.5	3.5	3.5	3.5	3.5	3.5	0	0	(2)	(2)	(5)	(7)	(7)	(0)
한국 (5년)	43.5	43.5	43.5	43.5	43.5	43.5	0	(0)	(2)	0	(0)	(21)	(21)	(0)
인도네시아 (5년)	76.5	76.5	76.5	76.5	76.5	76.5	0	1	1	9	8	5	(18)	8
브라질 (5년)	128.0	128.0	128.0	128.0	128.0	128.0	0	(10)	(13)	(14)	(36)	(5)	(100)	(10)
러시아 (5년)	12,940.3	12,940.3	12,940.3	12,940.3	12,940.3	12,940.3	0	0	0	0	0	0	0	0
상품 가격														
CRB 지수	306.5	306.5	302.1	307.9	309.1	309.1	0.8	0.9	3.9	4.4	(2.4)	14.2	15.5	3.5
WTI (달러/배럴)	62.9	62.9	62.3	65.2	66.4	66.8	6.2	10.7	12.9	5.6	(8.0)	(14.6)	(12.5)	16.3
두바이유 (달러/배럴)	67.0	67.0	66.9	68.1	68.5	68.5	2.2	10.8	5.9	(0.8)	(12.8)	(15.2)	(16.5)	10.4
LME 구리 (달러/톤)	12,881	12,851	12,620	12,912	12,809	12,809	(0.6)	0.4	19.3	31.8	33.9	50.7	40.1	3.1
금 (달러/oz)	5,042	4,992	4,878	4,978	4,996	4,996	(0.9)	4.9	22.5	49.2	70.0	146.8	171.3	15.7
은 (달러/oz)	77.41	76.61	73.53	77.20	78.51	78.52	1.4	(17.0)	55.0	107.2	138.2	241.3	259.9	9.6
옥수수 (센트/부셸)	431.8	431.8	426.3	427.0	425.8	426.3	(1.3)	0.6	(0.1)	12.2	(14.4)	1.8	(37.1)	(3.2)
소맥 (센트/부셸)	548.8	548.8	537.8	547.0	559.5	560.0	2.1	9.8	6.3	10.8	(4.4)	(3.9)	(26.8)	10.5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444	1,444	1,444	1,444	1,450	1,449	(0.4)	1.9	1.6	(3.6)	(0.9)	(7.7)	(10.7)	(0.7)
일본 엔화	152.70	153.47	153.31	154.81	155.01	155.18	(1.6)	1.9	1.5	(5.1)	(3.6)	(3.3)	(13.5)	1.0
유로화	1.187	1.185	1.186	1.178	1.177	1.176	(0.9)	0.3	2.0	0.9	12.0	8.8	10.0	0.1
중국 위안화 (역내)	6.905	6.905	6.905	6.905	6.905	6.905	0.0	0.8	3.1	3.9	4.9	4.2	(0.7)	1.2
중국 위안화 (역외)	6.901	6.884	6.885	6.892	6.900	6.901	(0.0)	0.8	3.1	4.1	4.8	4.4	(0.6)	1.1
인도 루피화	90.64	90.65	90.69	90.68	90.68	90.68	(0.0)	0.3	(2.2)	(4.0)	(4.4)	(8.5)	(8.8)	(0.8)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6,839	16,839	16,839	16,884	16,880	16,883	(0.3)	0.4	(0.9)	(3.6)	(3.3)	(7.2)	(10.2)	(1.1)
브라질 헤알화	5.223	5.223	5.223	5.236	5.215	5.215	0.2	3.1	2.3	5.1	9.4	(5.5)	(1.0)	5.0
달러 인덱스	96.92	96.92	97.16	97.70	97.93	97.98	1.1	(0.7)	(2.2)	(0.2)	(7.9)	(5.9)	(5.7)	(0.3)
아시아 달러 인덱스	93.0	93.0	92.9	93.0	92.9	92.9	(0.1)	1.0	1.9	0.9	3.1	1.5	(2.0)	0.7
JPM 이머징 통화 지수	47.71	47.68	47.68	47.55	47.49	47.49	(0.5)	1.3	3.0	3.8	6.6	1.2	(6.0)	1.9

참고: 2월 20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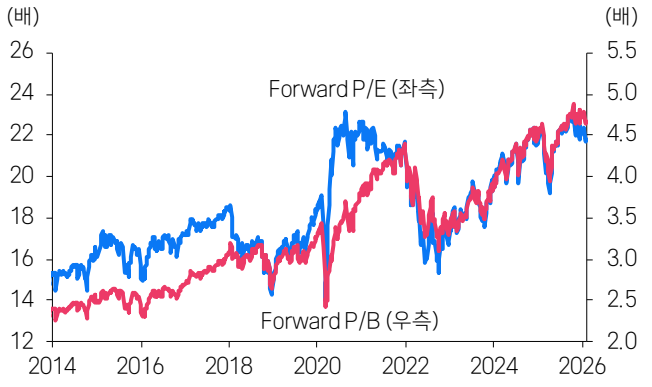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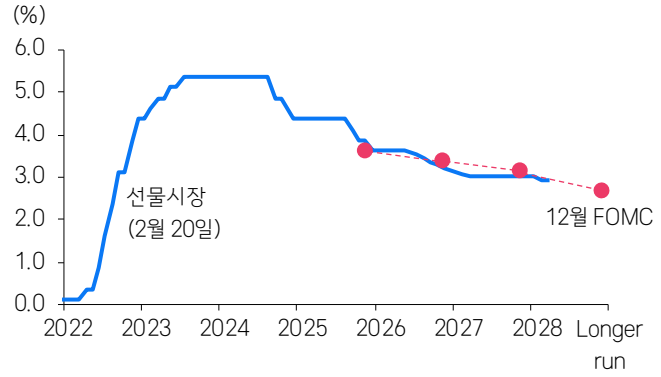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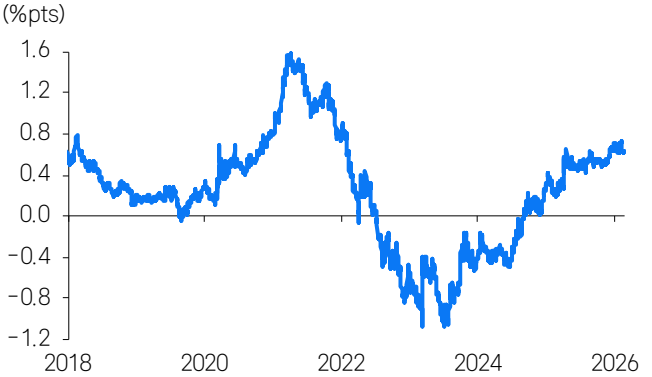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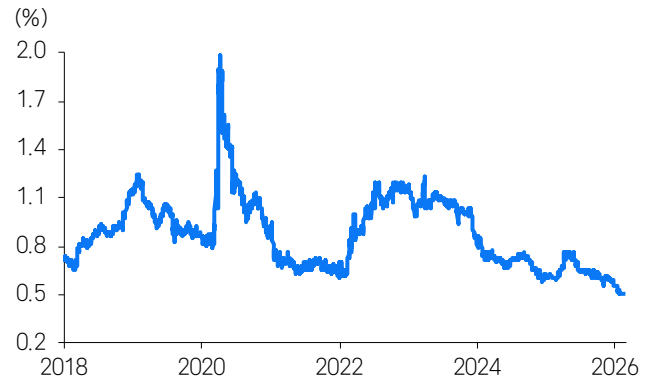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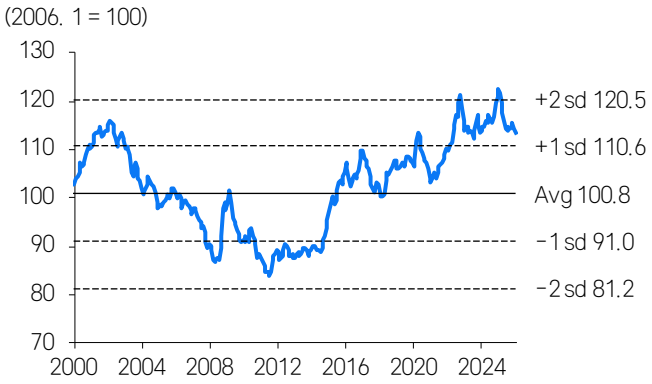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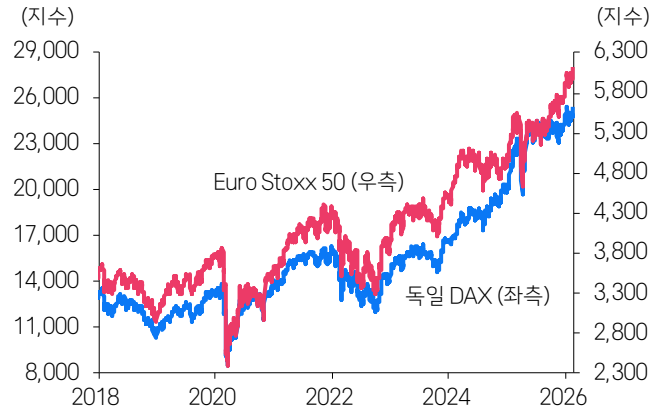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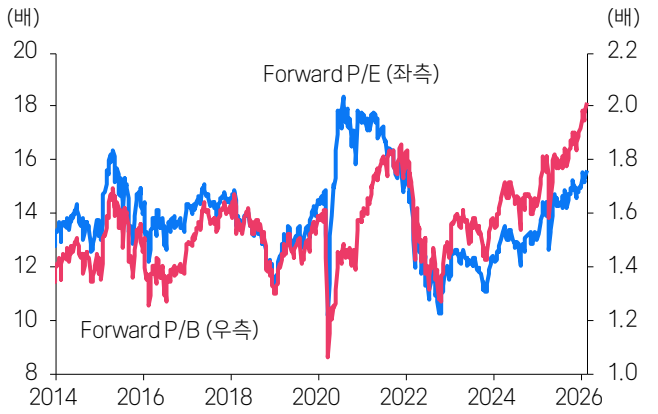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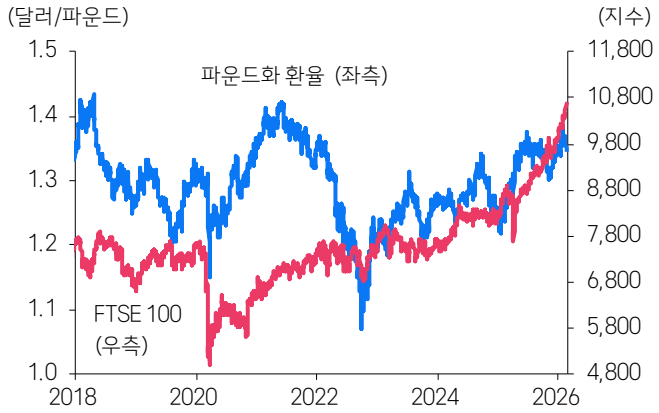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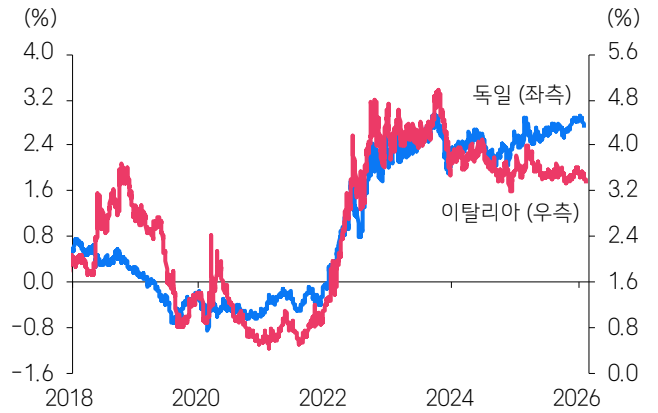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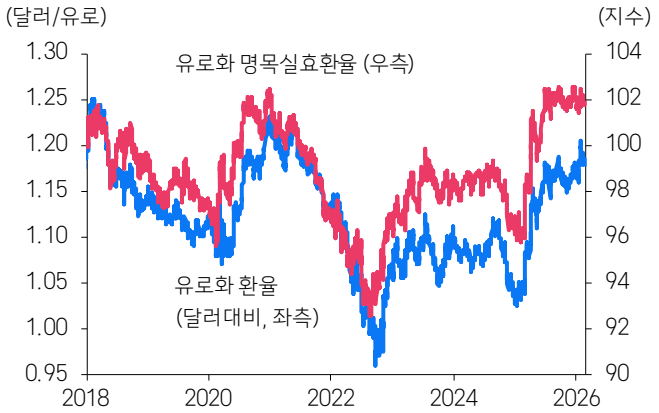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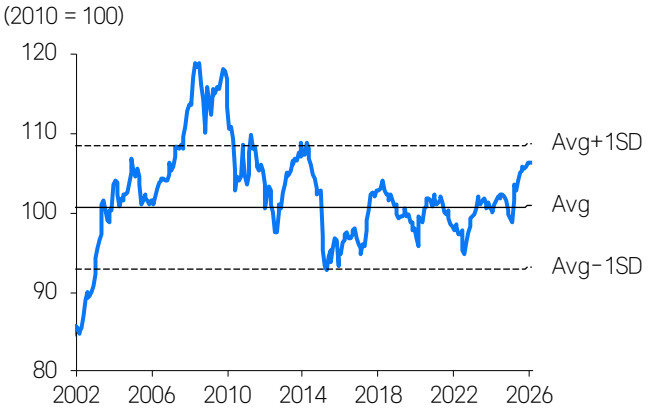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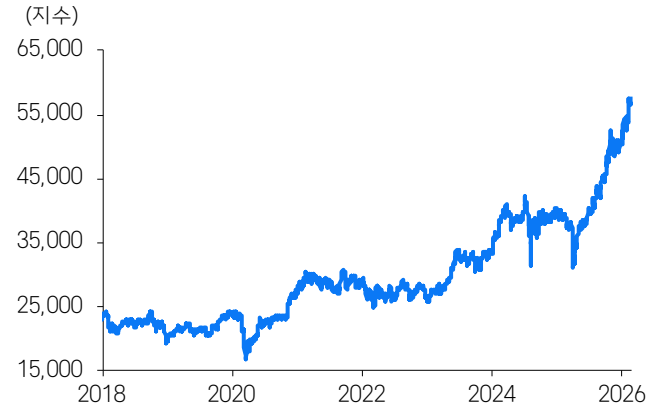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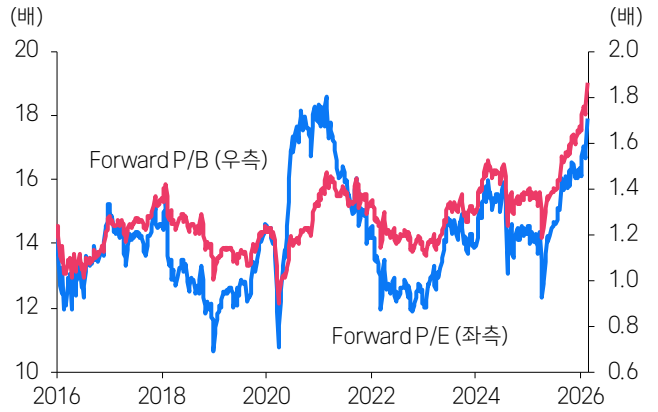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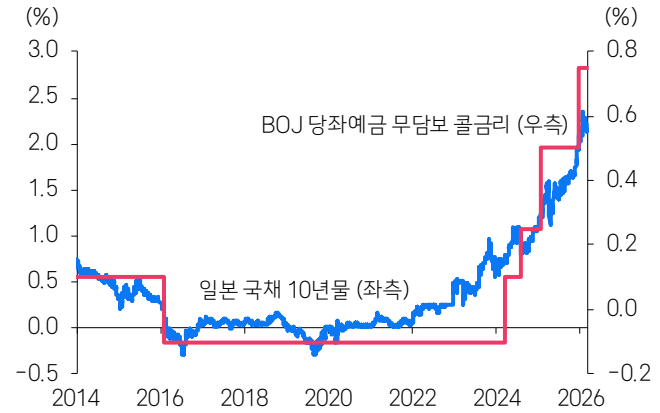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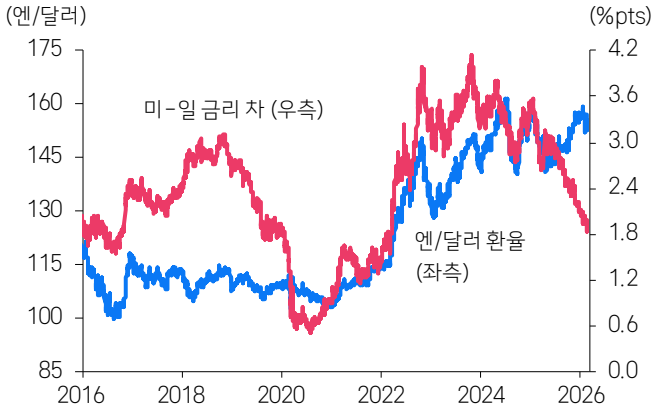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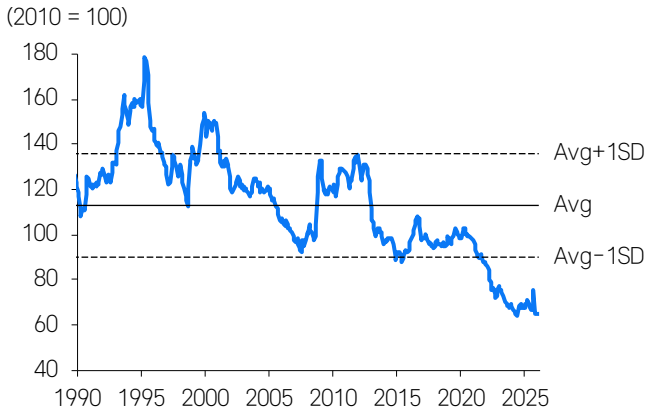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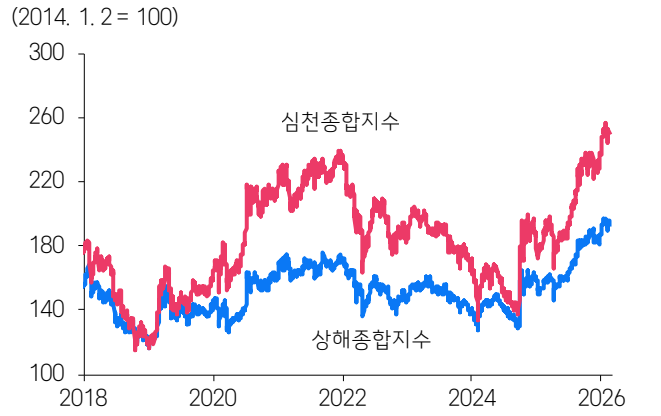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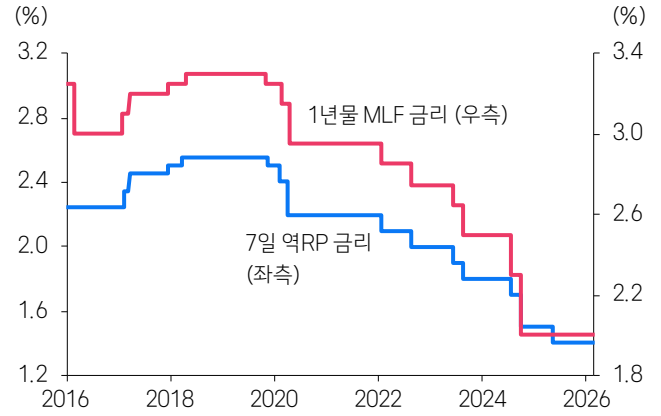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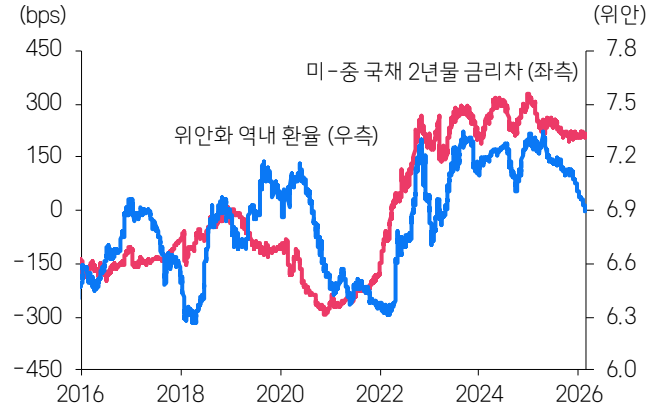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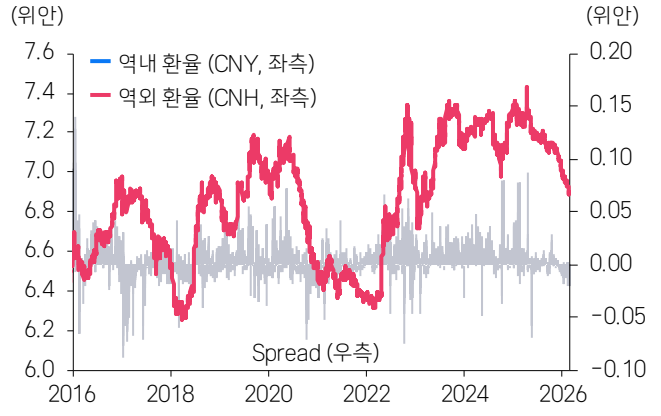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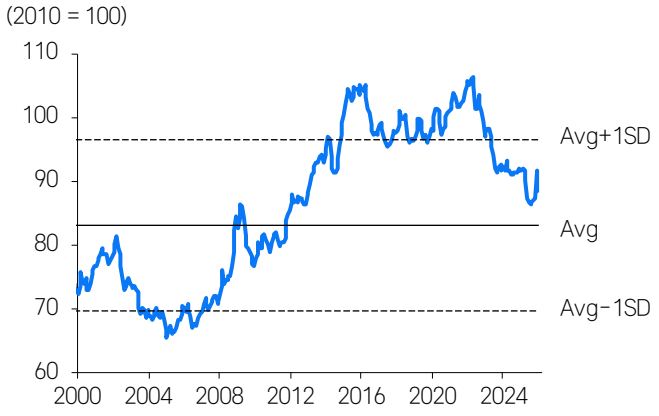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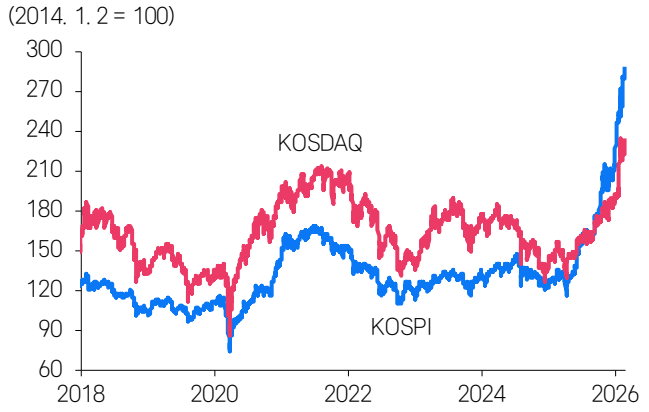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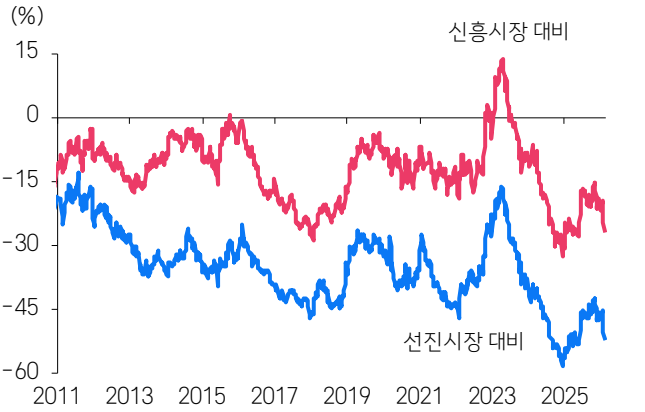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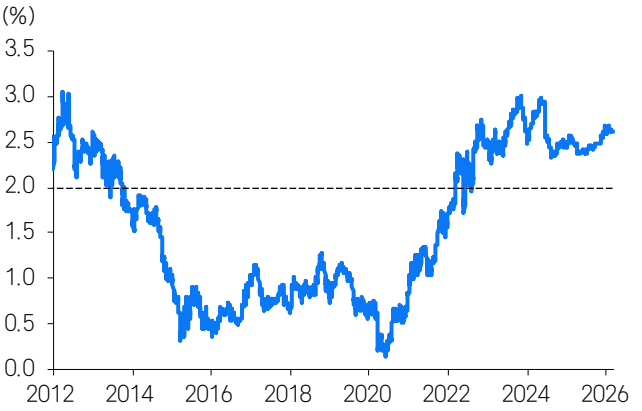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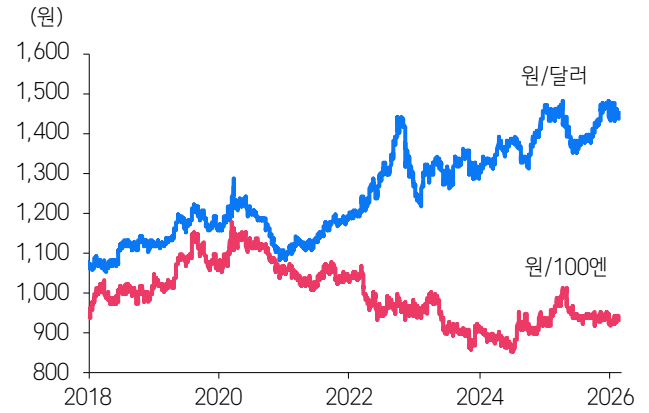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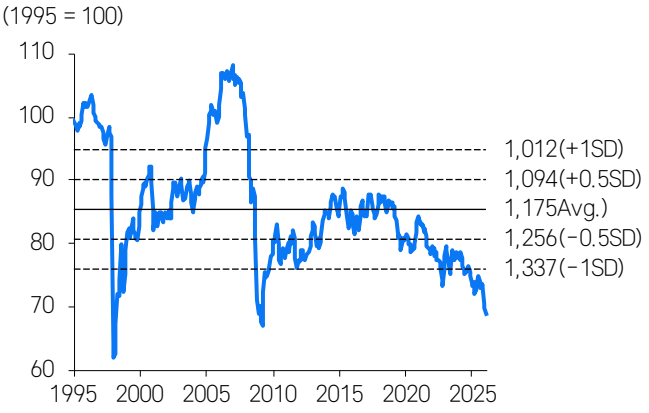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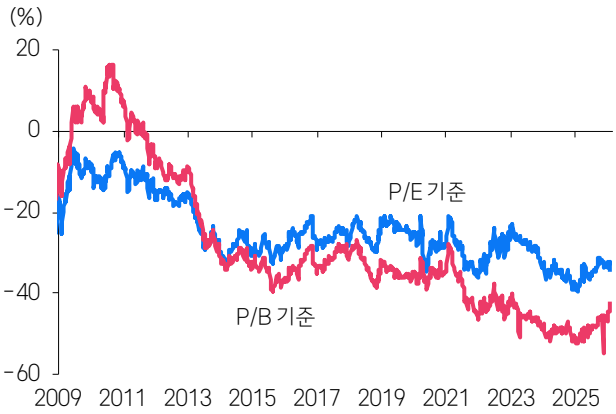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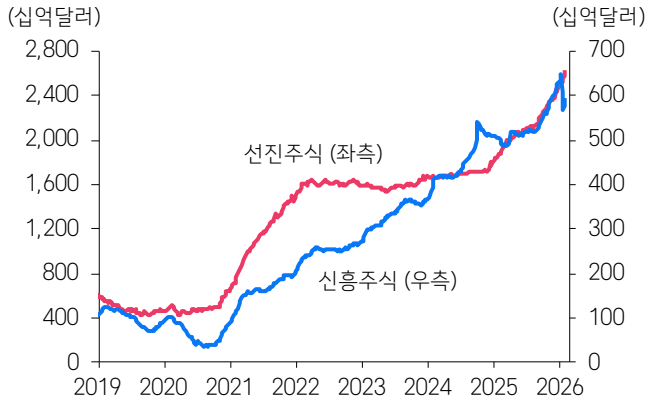
참고: MSCI 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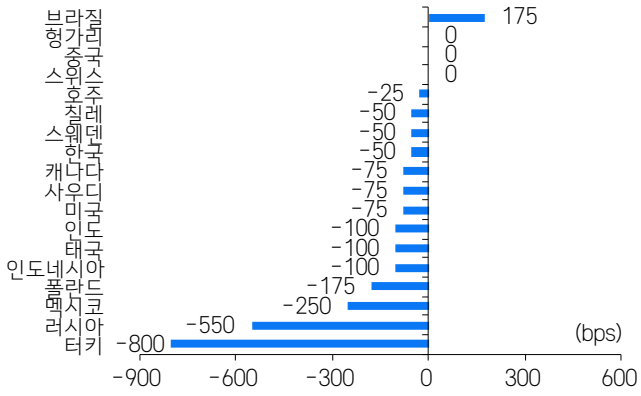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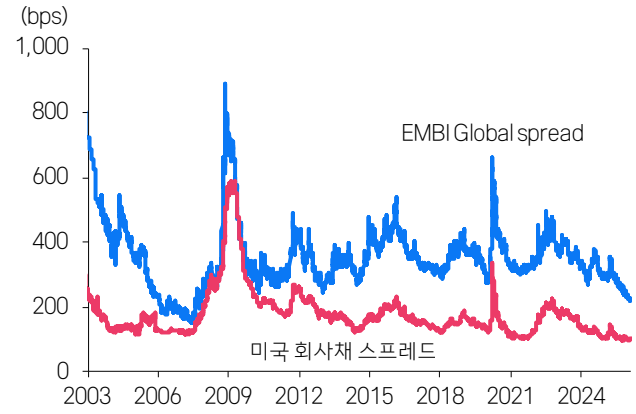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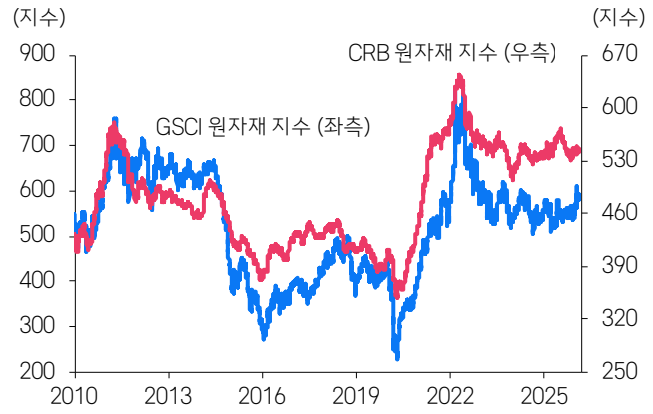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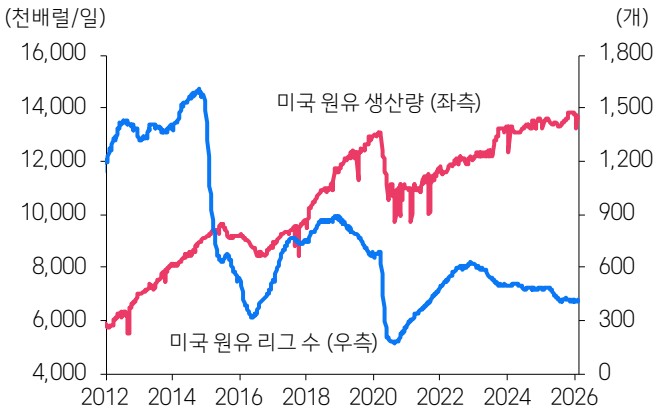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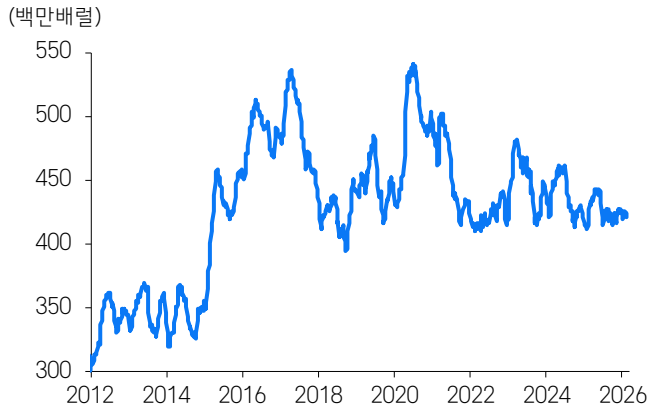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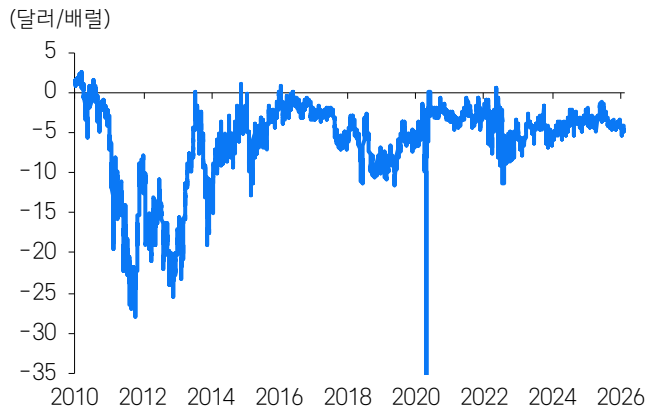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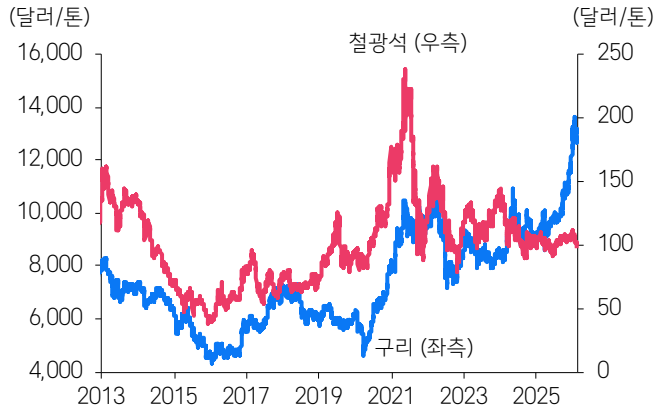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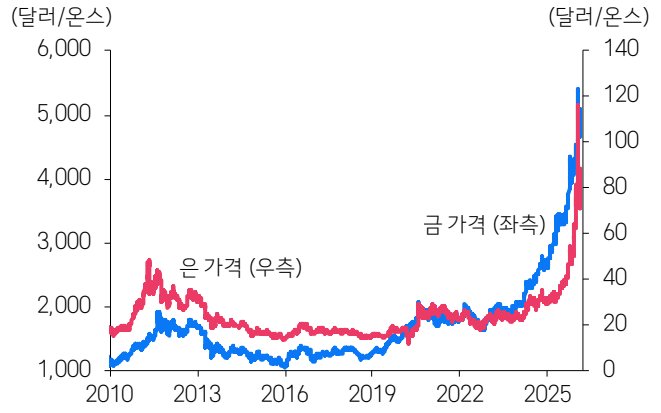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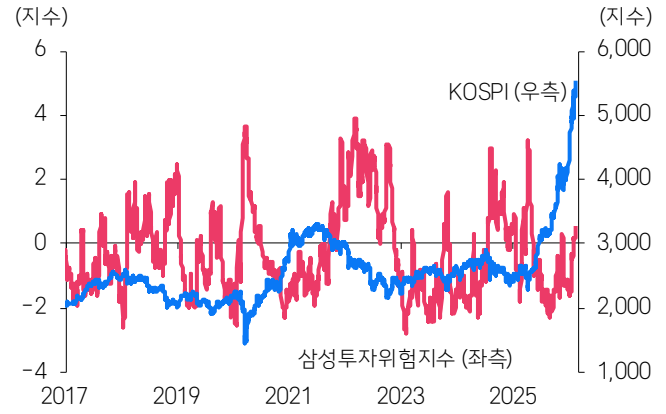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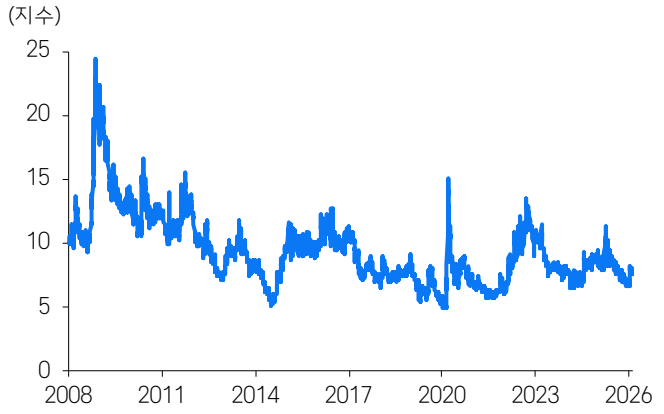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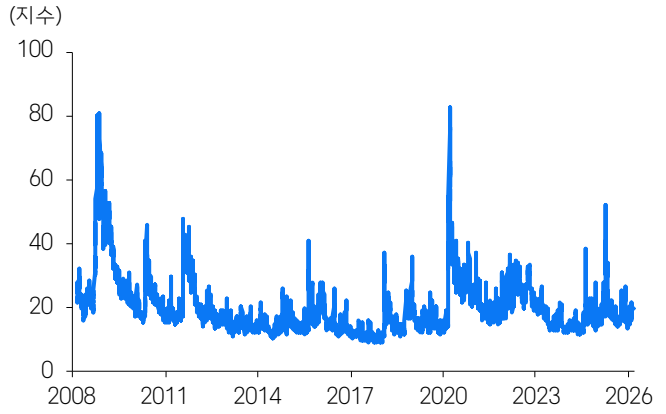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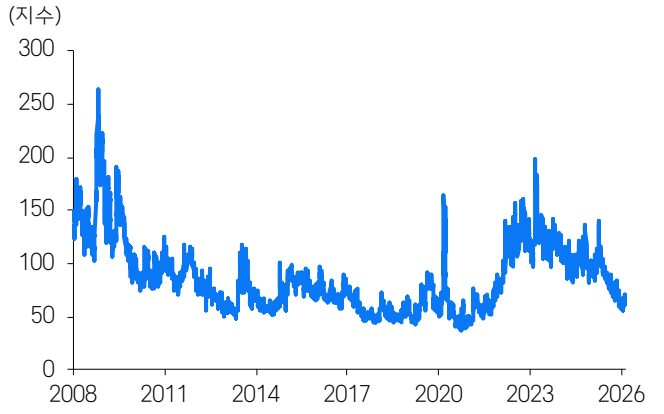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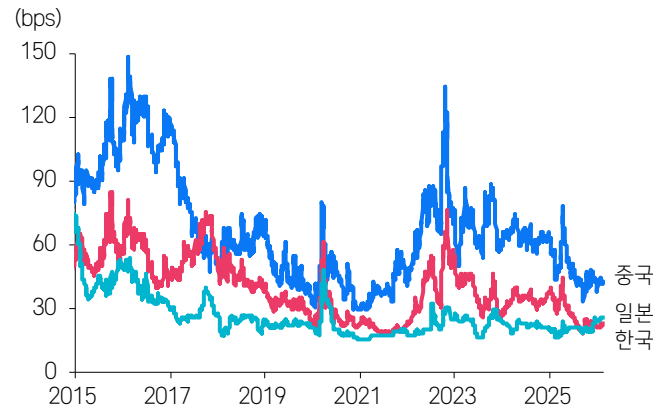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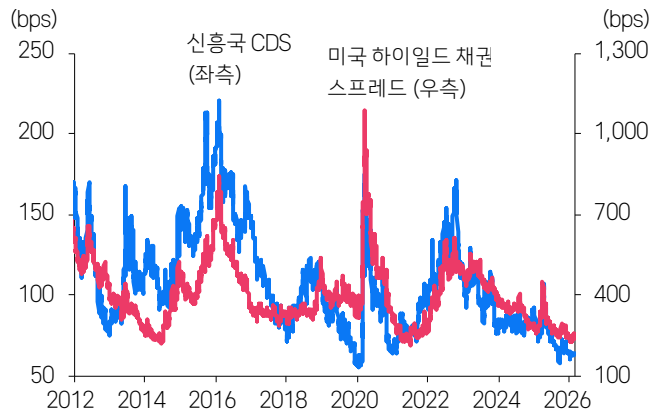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